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경제학자들, 미 대선 이후 인플레이 위험 경고
- WSJ: 미 대선 앞두고 고용 등 경제 지표가 태풍과 파업으로 내용이 왜곡될 듯

[미국 금융]

- WSJ: 달러 강세 추세... 미 선거 앞두고 견조한 경제로
- Bloomberg: 실적 발표 앞둔 주 초에 주식 상승세
- JP모건: 미국과 글로벌 금융 전망 및 미 대선

[미국 대선]

- Bloomberg: 대선 후보 누가 이기든 미국인 부 계속 상승

[오일]

- WSJ: 유가 4% 이상 떨어져... 이스라엘 공격, 이란 오일 시설은 피했다

[원자재]

- Bloomberg: 이번 주 주목할 5가지 글로벌 원자재 차트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애플의 AI 성공은 아이폰에 달렸다
- Bloomberg: LG 에너지 수익 40% 감소, 전기차 판매 둔화 탓
- WSJ: 보잉, 190억 달러 자본 조달 움직임
- CNNBusiness: 타겟, 역대 최저가 '추수감사절 식사 패키지' 출시
- CNNBusiness: TGI Fridays, 수십 개 매장 폐쇄
- CNNBuisness: 델타 항공, 대규모 항공편 취소 초래한 CrowdStrike 고소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WSJ: Economists Warn of New Inflation Hazards After Election 경제학자들, 미 대선 이후 인플레이 위험 경고

-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최근 둔화하는 긍정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내년 차용 비용과 물가 상승도 둔화될지는 두 미 대선후보의 정책 선택에 크게 달려있다. 두 후보 모두 인플레이 둔화를 막고 경제 성장을 진작시키는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 하지만 트럼프의 정책 아이디어들이 인플레이를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경제학자들과 심지어 보수주의 조언자들도 우려하고 있다. 그의 정책에는 수입품에 대해 일괄적인 관세 부과, 금리를 인하하도록 연준에 영향력 행사, 근로자 추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들이 내년에 인플레이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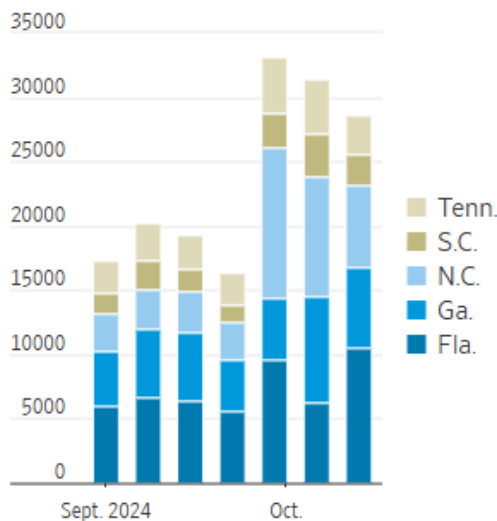
- 트럼프 첫 임기 때는 물가 압력이 낮았고 수년간 안정적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의 두 번째 임기에는 연방 적자와 인플레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WSJ: At a Pivotal Moment, U.S. Economic Data Will Be a Mess
미 대선 앞두고 고용 등 경제 지표가 태풍과 파업으로 내용이 왜곡될 듯

- 허리케인 Helene와 Milton이 대선 바로 직전의 민감한 상황에서 경제 지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0월 고용 보고서가 이번 주 금요일 나오는데 이는 선거 바로 4일 전이다. 대선 막바지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 연준의 다음 금리 정책은 미 대선 바로 이틀 후에 결정된다. 그런데 허리케인 여파가 발표되는 경제 데이터에 영향을 주어 연준이 경제 안정과 인플레이 둔화를 위해 금리를 내릴지, 내리면 얼마나 내릴지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 허리케인 Helene은 카트리나 이후로 가장 타격이 심한 태풍이었다. 여러 지역에서 여전히 복구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심지어 바로 2주 후에 Milton이 발생했었다.

Initial jobless claims in five hurricane-affected states



Note: Not seasonally adjusted
 Source: Labor Department

WSJ 기사

[미국 금융]

WSJ: Dollar Rises Further Due to U.S. Economic Strength, Ahead of Election
달러 강세 추세... 미 선거 앞두고 견조한 경제로

- 달러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지난 3개월간 가장 강한 포지션에 도달했으며,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ING's Chris Turner는 밝혔다.
- 유럽 연합의 경제 약세에 비교되는 미 경제의 강세와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 때문에 달러가 오르고 있다.
-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일자리 보고서와 개인소비지출 인플레이 지표들 때문에 연준이 작은 규모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달러는 이번 달에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바뀌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DXY 달러 인덱스는 최고치 104.573을 기록하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Stocks Rise at Start of Busiest US Earnings Week: Markets Wr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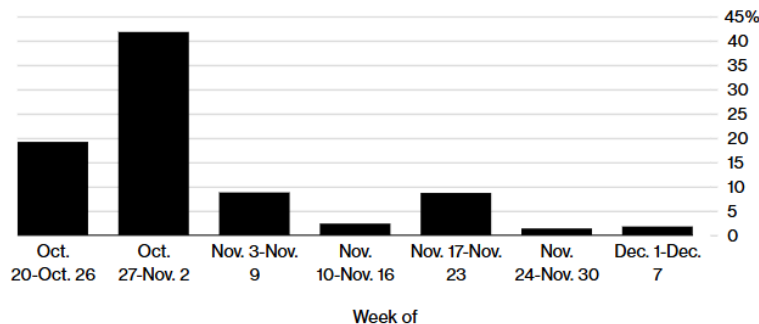
실적 발표 앞둔 주 초에 주식 상승세

- 바쁜 미 기업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시작되면서 주식이 상승세를 보였다. 트레이더들은 3가지 중요한 보고서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오일 가격은 하락했다.
- 연준의 다음번 금리 인하 여부 발표를 일주일 남겨두고 있다. 미 경제는 건조하고, 일자리 성장은 일시적으로 주춤하다는 내용의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 투자자들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가 플랫폼을 비롯한 '매그니피센트 7'의 몇 개 기업들을 포함해 S&P500의 거의 42%에 달하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 과거 2016년과 2020년의 S&P 500 관련해 선거 1주일 전에 매도세를 이룬 이후 주식은 급등한 적이 있었다.

Third-Quarter Reporting Season Enters Busiest Week

About 42% of S&P 500 companies are scheduled to report this week

■ % of S&P 500 market cap reporting



Source: Bloomberg Intelligence

Bloomberg 기사

JP 모건: Geopolitical risk premium rising amid fading macro concerns

미국과 글로벌 금융 전망 및 미 대선

- 아래는 10월 23일부터 양일간 IMF/World Bank Fall Meeting 전후에 열린 투자자 미팅 때 366명 전문가와 관계자로부터 받은 설문 결과다.
- **글로벌 경제 전망은 긍정적이다.**
 - 응답자 79%가 향후 12개월간 완만한 글로벌 경제 성장을 예상했다. 거의 60%는 향후 18개월간 침체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 인플레이 압력이 줄고 있다. 응답자 57%가 미국의 핵심 개인소비지출이 내년 말까지 2.0%에서 2.5%사이 에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37%만 2.5% 이상을 내다봤다.
- **미 재정적자를 심각한 리스크로 보지 않는다.**
 - 32%는 재정 적자가 관리 가능하고 위험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긍정적인 입장과 전망은 많은 투자자들이(75%) 의회가 양당에 의해 양분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장기적인 고금리 우려는 많이 사라졌다.**
 -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채권 금리가 정점을 찍었다고 보고 있다. 응답자 62%는 내년까지 국채 금리가 3.75% 이하, 50%는 3.50%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미 대선 후보의 정책 차이에도 불구하고, S&P 500의 방향성은 비슷하다.**
 - 응답자 56%는 트럼프 집권 시 S&P500이 6천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자 41%는 해리스가 집권해도 그만큼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 반대로 S&P500이 5천에서 5천5백으로 떨어지는 경우에 대해, 트럼프 집권 시 그럴 수 있다고 응답자 12%가 대답했다. 해리스 집권 시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15%에 달했다.
 - 투자자들은 대선 결과에 대해 양분되어 있다. 트럼프가 약간 앞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의회가 양당으로 양분될 것에는 컨센서스가 이뤄졌다.
-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매크로 한 리스크를 능가하는 상황이다.**
 - 시장에 가장 위험 요소로 32%가 지정학적 갈등, 18%가 인플레이 재발을 꼽았다. 미 침체와 연준의 판단 착오는 각각 12%와 6%에 불과했다. 71%는 중동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았다.
 - 중동의 불확실성에 불구, 30%는 내년 말까지 브렌트유가 70~75불 선 사이에 머무를 것으로 보았다. 70불 이하가 될 가능성은 34%, 75불 이상이 될 가능성은 36%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 3분의 1 이상은 향후 10년간 포퓰리즘을 세계 경제의 최대 위협으로 보았다.
- **미국 주식은 계속 가지고 있을 자산군이다.**
 - 주식은 올해와 내년에 선호하는 자산군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 45%는 S&P 500이 올해 말에 가장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 **중국의 경기 진작책에도 불구하고 외부 투자는 낮다.**
 - 응답자의 39%는 경기 진작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투자를 계속하지 않겠다고 했고, 25%만 향후 12개월간 투자를 늘리고, 17%가 투자를 줄이겠다고 답변했다.
- **S&P 500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AI여파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 51%는 AI로 인한 일자리 손실이 한자리 중간 이하가 될 것으로 보았으며 10%는 향후 10년간 일자리 손실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39%는 일자

리 손실이 두자리가 될 것이며 18%는 손실이 20% 이상 될 것으로 내다봤다.

JP모건 기사

[미국 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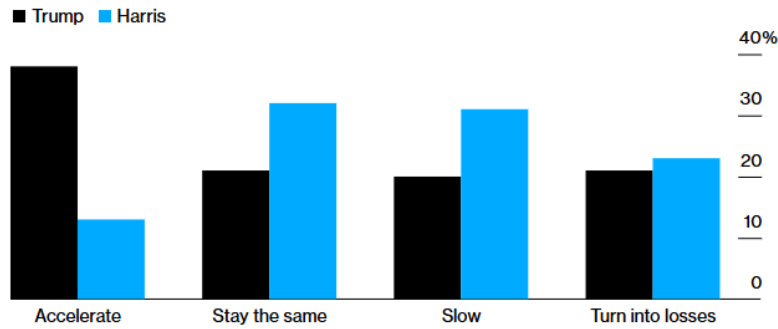
Bloomberg: American Wealth Will Grow Either Way Under Harris or Trump, Survey Shows

대선 후보 누가 이기든 미국인 부 계속 상승

-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주식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집권 시 금과 비트코인이 좋고, 해리스 집권 시 주거 비용이 안정되어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 주식은 올해 지금까지 22%까지 상승했다. 트럼프 집권 시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Markets Live Pulse 설문 답변에 따르면 응답자 38%가 트럼프 집권 시 지금부터 향후 1년간 급속도로 상승하고, 13%만이 해리스 집권 시 주식이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 반면에 해리스 집권 시 잠재적인 주택 구매자에게 유리하다. 30년 모기지 평균은 해리스 집권 말에는 평균 5.5%에 이르고, 트럼프의 경우 5.9%에 이를 것이라고 답했다.

Outlook for Stocks Is B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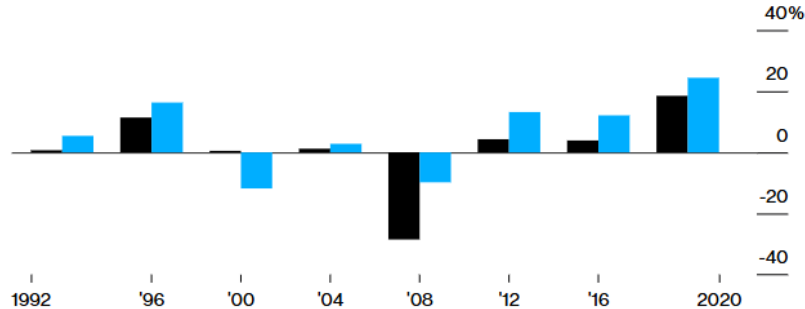
We asked: S&P 500 has gained about 2% a month so far this year. Under each candidate, will those gains ...



Source: Bloomberg MLIV Pulse survey Oct. 21- 25 with 350 respondents. Note: Percentage figures may not add to 100 because of rounding.

S&P 500 Tends to Rally After Presidential Election

Legend: ■ 6-month return prior to election ■ 6 months after



Source: Bloomberg

Bloomberg 기사

[오일]

WSJ: Oil Slides More Than 4% After Israel's Attack Spared Iranian Oil Facilities

유가 4% 이상 떨어져... 이스라엘 공격, 이란 오일 시설은 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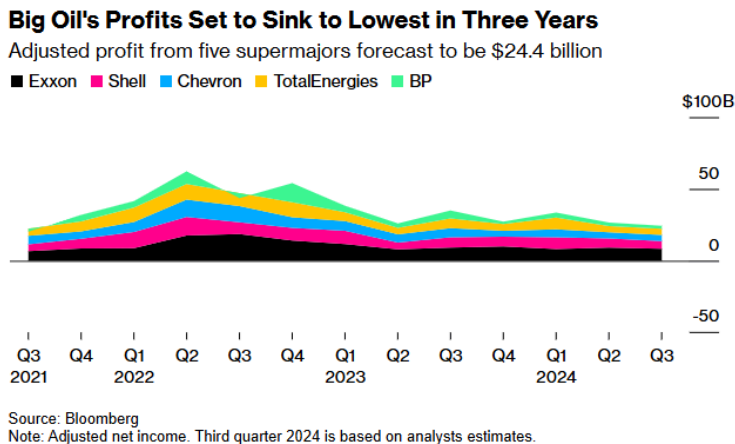
- 이스라엘이 주말에 이란을 공격했다. 유가는 유럽 개장에서 4% 이상 크게 하락 중이다.
- 브렌트유는 4.6% 낮아진 배럴당 72.18%,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4.9% 낮은 68.27달러를 기록했다.
-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은 이란의 오일 시설과 핵시설은 공격 타겟으로 하지 않았다. 대신 이란 지역의 미사일 제조 시설과 지대공 미사일 방어 지역을 목표로 이루어졌다. 이란 최고지도자는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 맹세를 자제했다.

WSJ 기사

[원자재]

Bloomberg: Five Key Charts to Watch in Global Commodities This Week 이번 주 주목할 5가지 글로벌 원자재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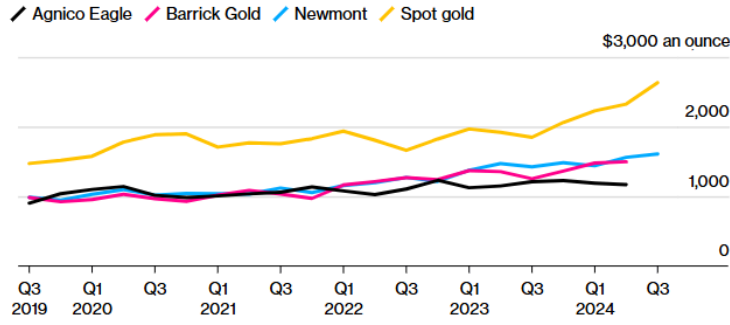
- 석유: Exxon Mobil, Chevron, Shell, TotalEnergies, BP의 실적이 2분기보다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잉여 현금 흐름은 작년보다 30%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사주 매입은 코로나19 당시 대형 석유 회사들의 핵심 전략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현금 부족으로 인한 배당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 금: 금 생산량 1위 기업인 Newmont는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 예상보다 높은 채굴 비용으로 월가를 실망시켰었다. Newmont의 사례가 예외적인 사례인지, 글로벌 금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인지, 이번 분기 발표에서 마진과 비용 부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Margins and Costs Are in Focus for Big Bullion Produc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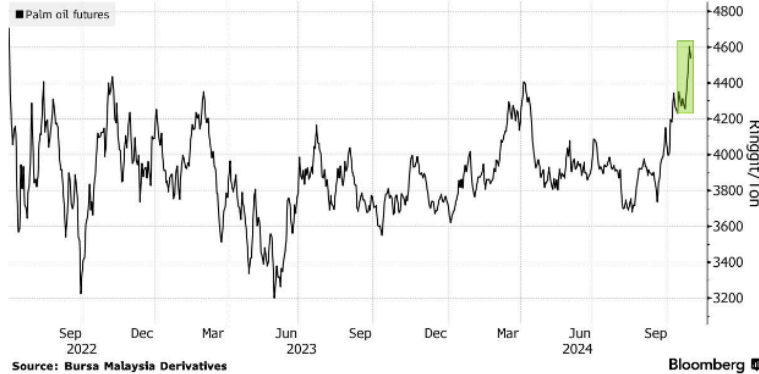
Agnico Eagle has had the lowest all-in sustaining costs among top 3 producers



Source: Bloomberg, company disclosures
 Note: All-in sustaining costs for gold. Barrick and Agnico Eagle haven't reported third-quarter results yet.

- 팜유:** 팜유 선물 가격이 올해 20% 이상 상승해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에 근접했다. 전 세계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생산량 감소 때문이다. 팜유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식용유다. 쿠키, 아이스크림, 샴푸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된다. 팜유의 가격 상승은 글로벌 식료품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alm Oil Hovers Around 2-Year Highs Amid Tight Supply
 High price of popular cooking oil rekindles food inflation f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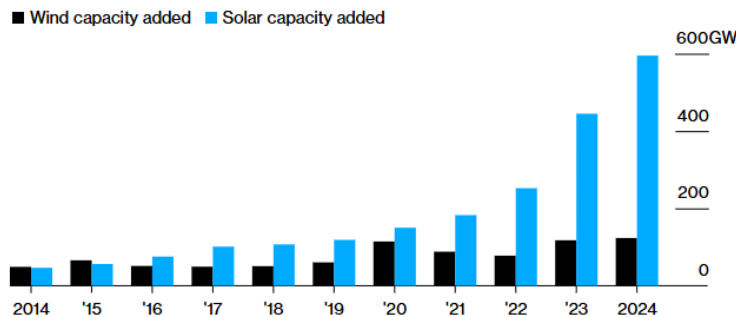


Source: Bursa Malaysia Derivatives
 Bloomberg

- 풍력:** 10년 전에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 추가량이 비슷했다. 하지만 현재 풍력 발전은 비용 상승과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발전 속도가 느려졌다. 이는 정부의 대체 에너지 전환 목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Wind Power Growth Stalls While Solar Power Boo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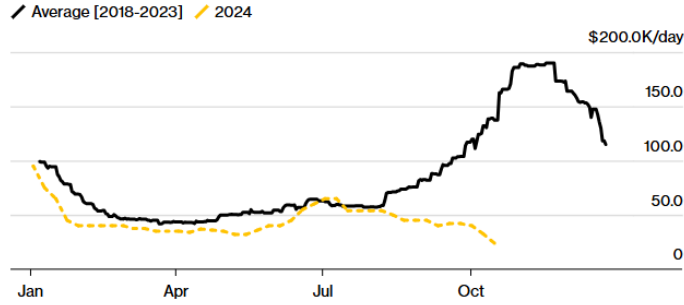
Rising costs and supply chain woes have hurt wind's prospects



Source: BloombergNEF
 Note: Data for 2024 is an estimate

- 천연가스:** 선박은 많은데 천연가스의 공급과 수요가 부족하다. 선박 중개 업체 Fearnleys A/S에 따르면 LNG 유조선 임대 비용이 2018년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일반적으로 난방 시즌에 운송 요금이 증가하는 것과는 다른 비정상적인 하락이다. 이는 일부 신규 LNG 공장의 지연으로 인해 선박이 일시적 과잉 공급됐기 때문이다.

LNG Spot Shipping Rate Posts Unusual Decline Ahead of Wi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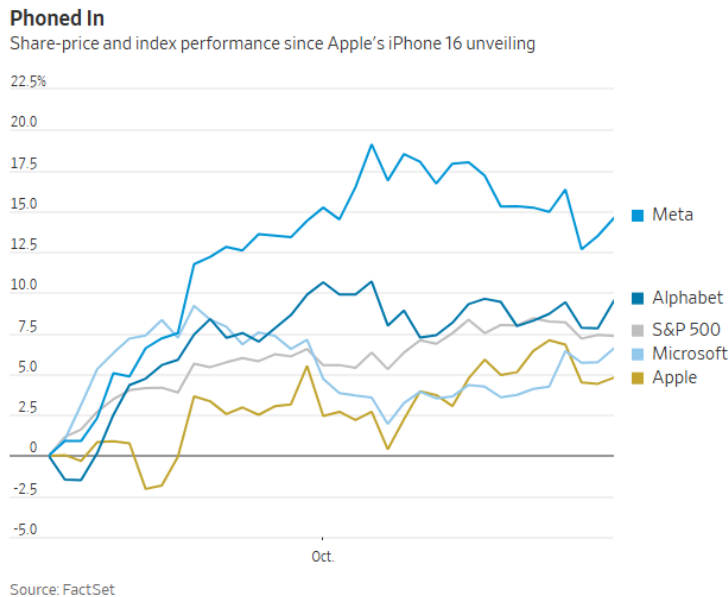
Source: Fearnleys
Note: LNG Tanker West of Suez 155-165000 cbm USD/Day Spot Rate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Why Apple's AI Success Hinges on the iPhone 애플의 AI 성공은 아이폰에 달렸다

- 애플은 아이폰 판매 실적이 중요하다. 하지만 짧아진 배송 시간과 통신사들의 수익 보고서를 보면 아이폰 16 시리즈 판매가 부진하다.
- 애플의 첫 번째 생성형 AI의 단계적 출시가 문제다. 애플 AI의 첫 번째 기능은 이번 주에 출시된다. 아이폰 16 출시 한 달 만이다. 애플은 iOS 업데이트에 따라 내년에도 AI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 비싼 하드웨어 비용도 문제다. 애플 AI를 사용하려면 평균 1천 달러가 넘는 아이폰 15나 아이폰 16 시리즈 모델이 필요하다.
- 하지만 애플의 빅테크 경쟁 기업들은 비싼 하드웨어 기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Meta Platforms는 지난달 12개 이상 국가에 Meta AI assistant를 무료로 배포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3억 명이 Meta AI를 이용하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LG Energy Profit Tumbles 40% on Slow Battery-Power Car Sales

LG 에너지 수익 40% 감소, 전기차 판매 둔화 탓

-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 LG 에너지 솔루션이 작년보다 40% 감소한 4천4백 8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전기차 수요 부진 탓이다.
- LG 에너지는 올해 초 미국 전기차 생산량 증가율 전망을 기존 35%에서 20%로 낮췄었다. 유럽 전기차 생산량 증가율도 기존 최대 25%에서 10% 중반으로 낮췄다.
- 전기차 수요 감소,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인플레이션법(IRA) 폐지 공약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창실 CFO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대선 결과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년 전망을 제시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 LG는 인플레이션법(IRA)에 따른 세금 공제를 제외하면 177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매출은 16.4% 감소한 6조 9천억 원을 기록했다.
- LG 에너지는 내년에는 꼭 필요한 분야에만 투자할 계획이며, 자본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WSJ: Boeing Moves to Raise \$19 Billion in Equity

보잉, 190억 달러 자본 조달 움직임

- 보잉이 155.01달러의 보통주 9천만 주에 대한 공모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140억 달러 자본을 조달할 예정이다. 보잉은 인수자에게 최대 1천350만 주와 7억5천만 달러의 예탁 주식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잉은 재정적 손실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미 1만7천 개의 일자리를 줄이고, 새로운 CEO를 영입했으며, 일부 우주 사업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 보잉 주가는 올해 40% 이상 하락했다. 보잉은 보유 현금을 모두 소진하고 신용 등급이 정크 등급(junk status)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WSJ 기사

CNNBusiness: Target releases its cheapest-ever Thanksgiving meal deal

타겟, 역대 최저가 '추수감사절 식사 패키지' 출시

- 타겟이 2023년보다 5달러 낮은 20달러에 추수감사절 식사 패키지를 출시했다. 해당 패키지는 4인분이며, 냉동 칠면조, 감자, 그린빈, 버섯 수프, 그레이비 소스 등 추수감사절 음식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 타겟의 CCO Rick Gomez는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저렴한 옵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Aldi와 월마트도 추수감사절 식사 패키지 가격을 인하했다. Sam's Club은 지난주 최대 10인분의 추수감사절 식사 패키지를 100달러 미만으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 소비자 물가지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식료품 가격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완화됐다. 노동통계국(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9월 식료품 가격 증가율은 1.3%로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낮다.
- Wells Fargo의 농식품 연구소 수석 농업 경제학자 Dr. Michael Swanson은 "소매업체들이 혜택을 늘리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소비자들이 더 많은 제품을 구매하길 바라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CNNBusiness 기사

CNNBusiness: TGI Fridays abruptly closes dozens more locations as a reported bankruptcy nears **TGI Fridays, 수십 개 매장 폐쇄**

- 지난 한 주 약 50곳의 TGI Fridays 매장이 문을 닫았다. 올해 초만 해도 미국 내 270개 매장을 운영했지만, 현재 164개의 매장만 남아 있다.
- TGI Fridays가 파산 신청을 할 것이란 보도가 있었다. Debtwire의 John Bringardner은 11월 인터뷰에서 "매장 수 감소, 소비자 선호도 변화, 패스트푸드와의 저가 경쟁으로 인해 부채를 감당할 수 없다. 남은 임대료 지급이 시작되기 전인 11월에 파산 신청이 이뤄질 수 있다.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다."라고 말했다.
-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 지출 행태가 달라지면서 올해 Red Lobster와 Buca di Beppo를 비롯한 여러 체인이 파산 신청을 했다.

CNNBusiness 기사

CNNBusiness: Delta sues CrowdStrike over software update that prompted mass flight disruptions **델타 항공, 대규모 항공편 취소 초래한 CrowdStrike 고소**

- 델타 항공은 사이버 보안 업체 CrowdStrike가 문제가 있는 업데이트를 강요했기 때문에 글로벌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금요일 조지아 주 법원에 CrowdStrike를 고소했다.
- 지난 7월, 델타 항공의 글로벌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7천 편의 대규모 항공편 취소가 발생했다. 5일 동안 130만 명의 고객이 피해를 봤으며, 5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다.
- CrowdStrike는 지난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문제에 대해 사과했었다. 하지만 다른 항공사보다 델타 항공에 훨씬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것은 델타 항공의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CNNBusiness 기사

[보고서]

**트럼프 2기 가능성...미국 물가 상승 다시 불붙나
경제학자들, 대선 후 인플레이 악화 가능성 경고
"관세 부과·이민자 추방 등 트럼프 공약, 인플레이 더 유발"**

다음 달 미국 대선 이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모두 대규모 재정 지출을 단행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공약이 물가 상승을 촉발할 위험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2년 반 동안 벌인 '치열한 싸움'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지만 미 대선이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28일 (현지시간) 분석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